



### 3차 과제

3월 4주차 }  
}

시가문학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자 미상, '청산별곡'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두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아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령공 더령공 허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 ㉠ 바므란 또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리 알라

(나) 윤선도, '어부사시사'

추(秋) • 2

슈국(水國)의 7올히 드니 고기마다 슬져 일다  
달 드러라 달 드러라

㉠ 만경당파(萬頃澄波)의 슬궤지 용여(容與)허자\*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인간(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추(秋) • 4

그러기 떳는 밧기 못 보던 뵈 뵈고야  
이어라 이어라

㉡ 낙시질도 허려니와 추(取)허 거시 이 흥(興)이라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석양(夕陽)이 부이니\* ㉢ 천산(千山)이 금슈(錦繡)로다

\* 용여허자 : 마음대로 하자, 안겨 보자

\* 부이니 : 비치니, 눈이 부시니

(다) 정지용, '향수'

넓은 별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으로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㉞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뷔인 밤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벼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 빛이 그립어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전설(傳說)바다에 춤추는 ㉟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의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뻐 것도 없는  
사철 발 벗은 안해가  
따가운 해사살을 등에 지고 이삭 쪼던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가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집웅.  
흐릿한 불빛에 돌아 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라) 김광균, '외인촌'

하이얀 모색(暮色)속에 피어있는  
산협촌(山峽村)의 고독한 그림 속으로

파-란 역등(驛燈)을 달은 마차가 한대 잠기어 가고,  
 바다를 향한 산마룻길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전신주 우연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었다.  
 바람에 불리우는 작은 집들이 창을 내리고,  
 갈대밭에 묻히인 돌다리 아래선  
 작은 시내가 물방울을 굴리고

안개 자욱한 화원지(花園地)의 벤치 우연  
 한낮에 소녀들이 남기고 간  
 가벼운 웃음과 시들은 꽃다발이 흩어져 있다.

외인 묘지(外人墓地)의 어두운 수풀 뒤엔  
 밤새도록 가느란 별빛이 내리고,

공백(空白)한 ㉠ 하늘에 걸려있는 촌락(村落)의 시계가  
 여윈 손길을 저어 열 시를 가리키면  
 날카로운 고탑(古塔)같이 언덕 우에 솟아 있는  
 퇴색한 성교당(聖教堂)의 지붕우에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문제 1] (가)~(라)의 시적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24)

- ① (가)의 '청산'은 일상적 삶의 터전과 구별된다.
- ② (나)의 '슈국'은 화자의 소망이 충족된 세계이다.
- ③ (나)의 '뫼'는 화자에게 흥취를 주는 공간이다.
- ④ (다)의 '넓은 별'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뜻한다.
- ⑤ (라)의 '산협촌'은 화자의 외로운 내면 세계를 표상한다.

[문제 2] ㉠, ㉡의 공통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25)

- ①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 ② 특정 음운을 거듭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는다.
- ③ 시상을 매듭 지으며 각 단계의 의미에 긴밀히 대응한다.
- ④ 반복의 효과를 바탕으로 시 전체가 통일감을 갖도록 한다.
- ⑤ 연과 연의 관계를 분명히 하여 시상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도록 한다.

[문제 3] <보기>를 참조할 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26)

<보 기>

갑 : 차라리 강으로 달려가 물고기 뱃속에 장사 지낼지언정, 어찌 희고 흰 결백한 몸으로 세속의 티  
끌과 먼지를 뒤집어쓰겠는가?

을 : 강물이 맑으면 내 갓끈을 씻고, 강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으리라.

- ① (가)의 화자가 '을'이라면,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가)의 화자가 '갑'이라면, 현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나)의 화자가 '을'이라면,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유유자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나)의 화자가 '갑'이라면, 현실에 적응하여 분수를 지키며 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가)와 (나)의 화자가 '갑'이라면,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 4] 시상 전개상 ㉠에 들어갈 시구는? 327)

- ① 계우준 바비나 지서
- ② 고우닐 스식옴 녀셔
- ③ 오리도 가리도 업슨
- ④ 미리도 괴리도 업시
- ⑤ 조롱곳 누로기 미와

[문제 5] 발상 및 표현이 ㉠과 가장 가까운 것은? 328)

- 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 아랫사람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 아닌가요?
- ② 날씨가 추워지면 옷을 더 입는 것처럼, 살기가 어려워질수록 친구를 더 많이 사귀어야 하는 법이란다.
- ③ 땀 흘려 산에 오르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네.
- ④ 제가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전공을 살릴 수 있을 뿐더러, 저의 이상도 실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⑤ 문학 작품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읽었는가가 아니라, 작품이 얼마나 뛰어난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문제 6] (다)의 각 단계의 장면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려 할 때, 시적 화자의 시각과 거리가 먼 것은? 329)

- ① 멀리서 바라본 농촌의 들판을 그리되, 평화롭고 향토적인 분위기가 나도록 한다.
- ② 시골집 방 안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그리되, 노년의 서글픔이 느껴지도록 한다.
- ③ 풀숲을 달리는 소년을 그리되, 동심이 꾸밈 없이 드러나도록 한다.
- ④ 들판에서 이삭 줍는 여인네들을 그리되, 소박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한다.
- ⑤ 불빛이 새어 나오는 초가집을 그리되,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도록 한다.

[문제 7] (라)를 내재적 접근 방법에 따라 감상한 태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 330)

- ① '화원지', '묘지' 같은 공간이 지닌 상징성을 찾아본다.
- ② '하이얀', '묻히인' 같은 시어가 주는 느낌을 음미해 본다.
- ③ '마차', '벤치' 같은 이국적 소재를 끌어 쓴 이유를 추측해 본다.
- ④ '파-란 역등', '새빨간 노을' 같은 묘사에 담긴 심상을 떠올려 본다.
- ⑤ '가벼운 웃음'이 흠어져 있다든지, '푸를 종소리'가 분수처럼 흠어진다든지 하는 표현의 특징을 분석해 본다.

[문제 8] (다)와 (라)의 시적 화자를 동일 인물로 설정하고, 그를 주인공으로 해서 연극을 꾸미고자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31)

- ① 의식이 현재와 과거를 수시로 넘나들게 한다.
- ② 소극적이고 예민한 심성의 소유자로 성격화한다.
- ③ 외적 현실과 내면 의식의 대립이 잘 드러나게 한다.
- ④ 현실에 찌들어 더 이상 고향을 생각하지 않게 한다.
- ⑤ 낯선 도시 생활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으로 한다.

[문제 9] ㉠~㉣ 중 시인이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332)

- ① ㉠                      ② ㉡                      ③ ㉢                      ④ ㉣                      ⑤ ㉤

시가문학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송순의 시조

풍상(風霜)이 섞여 찬 날에 갓 피은 황국화(黃菊花)를  
금분(金盆)에 가득 담아 옥당(玉堂)\*에 보내오니  
도리(桃李)\*야 꽃인 체 마라 ㉠ **님의 뜻을** 알패라.

- \* 옥당 : 홍문관. 조선 시대에 궁중의 경서, 문서 따위를 관리하고 임금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 \* 도리 : 복사꽃과 자두꽃.

(나) 정약용, '보리타작'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영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응해야 소리 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 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오

(다) 박인로, '누항사'

누항(陋巷)\* 깊은 곳에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風朝) 우석(雨夕)\*에 썩은 짚이 쉼[薪]이 되어  
서 흙 밥 닷 흙 죽(粥)에 연기(煙氣)도 많고 많다.  
얼마만큼 받은 밥에 현순(懸鵝) 치자(稚子)\*들은  
장기 벌여 졸 밀듯 나아오니  
인정(人情) 천리(天理)에 차마 혼자 먹을런가  
설대운 숙냉(熟冷)\*에 빈 배 속일 뿐이로다.  
생애(生涯) 이러하다 ㉡ **장부 뜻을** 옮길런가  
안빈(安貧) 일념(一念)을 적을 망정 품고 있어  
수의(隨直)\*로 살려 하니 날로 좃아 서어\*하다.

- \* 누항 : 누추한 곳.
- \* 풍조 우석 : 아침 바람과 저녁 비.

- \* 현순 처자 : 누더기 옷을 입은 어린 자식.
  - \* 숙냉 : 송냥.
  - \* 수의 : 옳은 일을 좇음.
  - \* 서어 : 서로 맞지 않고 어긋나 뜻대로 되지 않음.
- 

[문제 1]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33)

- 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있다.
- ② 화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소재로 하고 있다.
- ③ 사실을 제시하고 나서 주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는 현실을 도피하고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
- ⑤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문제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34)

- ① ㉠과 ㉡은 모두 화자가 존중하는 가치이다.
- ② ㉠은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강직한 신화가 되라는 것이다.
- ③ ㉡은 물질보다는 정신을 중시하는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 ④ ㉠이 본래부터 가진 신념이라면, ㉡은 새롭게 얻은 깨달음이다.
- ⑤ ㉠은 우회적으로 드러나 있으나, ㉡은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문제 3] (가)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35)

- ① ‘금분’과 ‘황국화’는 색채적인 효과를 살린 시어이다.
- ② ‘섞어 친’과 ‘갓 피운’은 대조적인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 ③ ‘황국화’와 ‘도리’는 상징적 의미가 대비되는 자연물이다.
- ④ ‘금분’은 정신적 의미로, ‘옥당’은 물질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⑤ ‘풍상이 섞어 친 날’은 ‘황국화’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문제 4] <보기>는 (나)를 영상물로 제작하기 위해 세운 계획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36)

<보 기>

ㄱ.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밝은 표정을 클로즈업한다.  
 ㄴ. 벼슬길에 나아가려는 사람들의 준비 과정을 보여 준다.  
 ㄷ. 농민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를 배경 음악으로 활용한다.  
 ㄹ. 해설자를 통해 농민들의 건강한 삶의 의미를 설명한다.  
 ㅁ. 벼슬아치의 고민과 괴로움을 인터뷰 장면으로 삽입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문제 5] <보기>는 (다)의 작자가 (다)에 앞서 지은 '태평사(太平詞)'의 마지막 구절이다. (다)와 <보기>를 종합하여 이끌어 낼 수 있는 문제 의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37)

<보 기>

경전(耕田) 착정(鑿井)\*에 격양가(擊壤歌)\*를 불리소서  
 우리도 성주(聖主)를 뵈시고 동락 태평(同樂太平)\*하오리라  
 \* 경전 착정 : 밭을 갈고 우물을 팜.  
 \* 격양가 : 태평 세월을 즐기는 노래.  
 \* 동락 태평 : 태평 세월을 함께 즐김.

- ① 타인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②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길은 무엇인가?  
 ③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④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⑤ 과거와 현재를 조화시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서사문학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찍이 윤 직원 영감은 그의 소싯적에, 자기 부친 윤용구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광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 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고.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겹하여 위대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해서 윤 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고. 그런데….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 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넌방 고씨만 빼놓고, 서울 아씨, 태식이, 뒤채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옹위 아래 윤 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 앉았습니다.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너 경손 애비, 부디 청신채리라……!”

윤 직원 영감이 종수더러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 애비지요.

“……정신을 채리야 헐 것이 니가 암만하여두 네 아우 종학이만 못하여! 종학이는 그 놈이 재주두 있고 착실하여서, 너치름 허랑허지도 않고 그럴뿐더러 내년 내후년이머년 대학교를 졸업허잖나? 내후년이지?”

“네.”

“그렇지? 응,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허구나와서, 삼 년이나 다직\* 사 년만 찌들어 나머년 그놈은 지가 목적헌, 요새 그 목적이란 소리 잘 쓰더구나, 응? 목적……목적헌 경부가 되야 갖추서, 경찰서장이 된담 말이다! 응? 알겠어.”

“네.”

“그러닝개루 너두 정신을 바짝 채리 갖추서, 어서 어서 군수가 되어야 않겠냐……? 아, 동생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디, 형놈은 게우 군서기를 댕기구 있담! 남 부끄러서 어쩔 티여? 응……? 아 글씨, 군수 되구 경찰서장 되구 허머년, 느덜 좋구 느덜 호강이지 머,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렇게 아등아등 잔소리 허년 것두 다 느덜 위위여서 그러지, 나는 파리 족통만치두 상관윽어야 알아듣냐?”

“네.”

마침 이 때, 마당에서 험험, 점잖은 발은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 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억지로 큰댁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뜨겼구나?”

윤 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립니다.

“……멧하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둘러 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

“동경서? 전보?”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구요!”

“으응?”

외치는 소리도 컸거나와 엉덩이를 콩- 짙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선 은식구가 제가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구요.

“종학,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피검……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테지요!”

“사상 관계라니?”

“그 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으응?”

<중 략>

윤 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건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향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야?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느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년 다 지내가고오……. 자 부아라, 거리 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하여서, 우리 조선놈 보호하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어? 으응……? 제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외지가 평평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망쳐 놀 부랑당패에 참섭\*을 헌단 말이며, 으응?”

- 채만식, '태평천하'

- \* 다직 : 기껏
- \* 영각 : 황소가 길게 뿜아 우는 소리
- \* 참섭 : 남의 일에 참견하여 간섭하는 것

[문제 1] 밑글에서 '전보'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38)

- ① 작품의 분위기를 전환시킨다.
- ② 주인공의 운명을 암시해 준다.
- ③ 서술 시점이 바뀌는 장치로 작용한다.
- ④ 갈등 구조가 급전(急轉)하는 계기가 된다.
- ⑤ 두 사건을 연결하여 긴장감을 유지시킨다.

[문제 2] '윤 직원'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339)

- ① 적대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② 사건의 전개에 따라 태도가 변하고 있다.
- ③ 일관되게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 ④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판적이다.
- ⑤ 대체로 냉정한 편이지만 때로는 동정하기도 한다.

[문제 3] <보기>와 같은 노래의 시적 화자는 '윤 직원'의 어떤 점을 비판하겠는가? 340)

<보 기>

무산자 누구냐 탄식마라.  
부귀와 빈천은 돌고 돈다.  
감발을 하고서 주먹을 쥐고  
용감하게도 넘어간다.  
발 잃고 집 잃은 동무들아  
어데로 가야만 좋을까 보냐.  
괴나리 붓짐을 짊어지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일제 강점기의 민요 「신아리랑」에서

- ① 왜곡된 현실관
- ② 비타협적인 태도
- ③ 소극적인 인생관
- ④ 빛나간 자식 사랑
- ⑤ 체신머리 없는 행동

[문제 4] <보기>는 윗글에 대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41)

<보 기>

소설 작품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즐거움에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즐거움, 형상화된 세계에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자기 자신을 깨닫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채만식의 「태평천하」의 경우에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접근해 가면서 이 두 가지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다.

우선 당대의 현실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이 작품을 읽기 전에는 일제 강점기를 살아간 사람들은 궁핍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고,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을 열망하고 있었다고 막연히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실상이 그렇지만은 않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시류에 영합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윤직원 영감 같은 인물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이 작품은 실감나게 전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일제에 대항한 인물들은 무척이나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이 작품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몇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그 깨달음은 이런 것들이다.

---



---

- ① 윤 직원의 헛된 욕망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의 끝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았다.
- ② 지금의 내 성격으로 보아 내가 당대에 태어났다면 종학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 ③ 종학같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일제에 맞서 대항한 인물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④ 윤 직원의 소위 '태평천하론'을 접하면서 역사 의식이란 피상적인 이해만으로는 형성될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 ⑤ 나는 과연 윤 직원이라는 인물과는 달리 나 자신의 이익이나 사회의 이익을 더 중시하고 있는가 반문해 보았다.

**서사문학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 날의 첫 모험은 우리들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는 하나의 신비한 꿈이었다. 사실상 내가 수병으로 입대한 것도 그 신비로운 꿈을 실현시켜 보려는 하나의 방법이었는지도 모른다.

파도는 높고 하늘은 흐렸지만 그 속에 솟구막치면서 흐르는 나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영상은 푸르고 맑은 희망이었다.

나는 어떻게 누구의 손에 의해서 구원됐는지도 모른다. 병원에서 내가 의식이 회복되었을 때 다만 한 쪽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

대개 병원에 입원했던 부상병이 퇴원할 즈음이 되면 곧잘 모여 낮은 자리에서 자기가 산 것을 기적같이 말하곤 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나 자신이 살아난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물론 그 날의 일은 모두가 과거요, 추억이지만 그 날 내가 본 신기한 꿈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그 때까지는 미래에 속하여 있었다. 내가 나의 생환을 기적이라고 생각지 않은 원인도 이런데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떤 절망에 빠졌어도 꿈을 갖는다는 것은 소중한 일이다.

파도에 떠 흐르는 동안 내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는 이런 소중한 꿈을 갖고 있었던 까닭에 나는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 같지가 않았다.

나의 부상은 경상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부터 불구자가 되었다. 관절의 자유를 잃은 나는 한 쪽 다리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배를 타는 데 무슨 부자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는 배에 오르면 성한 사람 못지않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군복을 벗을 때까지 두 번 다시 배를 타지 못하였다.

수병의 자랑은 배에 올라 일하는 때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한 자신이 육지에 있어야 했고, 저는 다리로 걸어야 한다는 것은 나에게 더할 수 없는 모욕이기도 했다.

바다의 아침이란, 우리가 일찍이 느껴보지 못한 장엄한 풍경이다. 그러나 제 아무리 장엄한 풍경이라 해도 우리를 매혹시키지는 못했다.

주림과 피곤에 지친 우리들은 이러한 풍경을 바라다 볼 기력도 없이 주저앉아 있기 마련이었다. 우리 세 동갑 중 가장 치밀하고 슬기있는 것이 상운이다. 치밀이라고 할까 또는 슬기라고나 할까 어쨌든 그 날 아침 불안과 절망에 묻혀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 것은 상운이었다.

“됐어 됐어! 자 이것 봐……. 이것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아…….”

그가 중얼거리며 선창에서 끌어당길 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야! 살았다. 살았어…….”

순복이가 이런 소리를 칠 때야 겨우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그물이다…….

그물……. 내 마음 속에서도 그들모양 생기가 꿈틀거렸다.

매듭과 매듭으로 그물이 짜여 있듯이 새로운 불안이 우리들의 가슴을 얽어 매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물을 친다는 것은 겨우 투망질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그런데 이 큰 그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통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어떻게 하지…….”

나의 물음에 상운이도 대답을 잃은 채 그물만 들고 뒤적거리고 있었다. 나는 새로운 기적을 바라듯 멍청히 하늘을 쳐다 보았다. 하늘도 제 빛을 차지하여 파란 바탕으로 우리들의 머리 위를 뒤덮고 있었다. 그 때 나는 확실히 어떤 꿈을 꾸고 있었다 꿈이 아니라 어제 일을 머리속에 그리고 있었다. 머리 위에 빙빙 돌며 우리들의

길 안내를 해 주던 갈매기는 어디로 갔을 까? 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갈매기의 방향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우리들이 길을 잃은 것은 갈매기의 그림자를 잃은 때부터였던 까닭이다.

그러나 갈매기의 울음소리는 비어 있는 하늘 아래 아무데서도 들려 오질 않았다. 나는 모든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상의 기적을 바라는 자신의 어리석은 것 같아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상운이와 순복이가 큰 그물을 칼로 자르고 있는 것을 보았던 까닭이다.

“어떻게 하지?”

놀란 나의 목소리는 떨고 있었다.

“무엇을……?”

나는 대답에 궁했다. 상운과 순복은 번갈아 나의 표정을 쳐다보며 일손을 멈추지 않는다. 그들의 표정에 가벼운 노기가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의 배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선주에게 빌린 배다. 그물도 역시 그러했다. 그물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상운과 순복이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때처럼 우리 식구들의 생명이 그물코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본 적은 없었다.

무거운 침묵이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햇살이 퍼진 탓에 누긋한 바람이 목덜미를 씻고 지나갔다. 눈 앞에 두 번 세 번 떠오르는 아버지의 얼굴을 잊으려고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물이 중하지…….”

뱃머리를 두드리는 파도 소리보다도 그 목소리는 고요 속에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그물도 중하지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 절박한 일이야”

㉠ 나는 이 말에 이상한 감동을 느꼈다.

- 정한숙, 'TYEU 도'

[문제 1] 윗글의 내용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삶의 지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42)

- ① 현실 상황에서는 고난과 환희가 늘 교차하게 마련이다.
- ② 언제 닥칠지 모르는 비극적 상황에 항시 대비하여야 한다.
- ③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의지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 ④ 고난의 체험은 훗날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
- ⑤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 준다.

[문제 2] 윗글의 서술상 특징과 효과를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43)

- ① 회상을 통해 과거의 두 체험을 관련지어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 ② 한 인물이 사건을 자기 나름으로 해석하여 사건이 지닌 다양한 의미를 잘 드러냈다.
- ③ 인물이 처한 상황과 심리를 상징적 사물을 통해 그림으로서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사건을 체험한 사람이 직접 서술하는 방식을 취해 작품 내용을 보다 신빙성 있게 하였다.
- ⑤ 서술자가 인물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독자가 직접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였다.

[문제 3] 윗글의 '세 동갑'이 처한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344)

- ① 고립무원(孤立無援)
- ② 일진일퇴(一進一退)
- ③ 오리무중(五里霧中)
- ④ 암중모색(暗中摸索)
- ⑤ 점입가경(漸入佳境)

[문제 4]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45)

- 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에
- ② 동료의 성숙한 상황 판단 때문에
- ③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 ④ 투망질을 했던 추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에
- ⑤ 그물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에

[문제 5] 주인공 '나'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346)

- ① 위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나 소심한 편이다.
- ② 환상적인 꿈을 쫓고 미래를 낙천적으로 생각한다.
- ③ 개인적 신념이 투철하며 냉정하게 현실에 대처해 나간다.
- ④ 현실 파악은 다소 느리지만 저돌적으로 자기 목표를 실현한다.
- ⑤ 매사를 치밀하게 파악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비문학 독해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1987년 2월 마지막 주에 과학자들은 오랜만에 육안으로 별의 장렬한 죽음을 목격했다. 큰 별은 수명을 다하는 순간, 대폭발을 하며 태양보다 몇억 배의 찬란한 빛을 내면서 타 버린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라는 강한 중력장을 만드는 실체를 남긴다는 것이 천체 물리학의 통설이다. 이렇게 폭발하는 순간, 너무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별이 갑자기 밝아짐으로써 마치 새로운 큰 별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과학자들은 이런 별을 초신성(超新星)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선조들은 객성(客星), 즉 손님별이라 불렀다. 아마 불쑥 찾아온 손님을 연상했던 모양이다.

②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선조 37년(1604년) 10월 31일 조를 보면 객성을 발견한 당시의 생생한 기록이 있다. 즉 “초저녁에 객성이 미수 10도 거극(去極) 110도 자리에 있었는데 목성보다 작고 황적색 빛깔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른 새벽녘에는 안개가 끼었다.”라고 하였으며, 그 뒤 약 1년 동안 관측된 이 객성의 모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증보문헌비고』에는 『삼국사기』 이래의 객성 관측 기록을 모아 정리하면서, 객성이란 돌연히 출현한 괴이한 별들을 이른다 고 하였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항성(恒星)의 하나인 노인성(老人星)을 객성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 점에 대하여 편찬자는 노인성이 우리 나라에서는 쉽게 관측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③ 그러나 일찍이 고려 시대에는 ㉠ 노인성을 수성(壽星)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이별이 나타나면 장수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의종 24년(1170년) 2월에 낭성(狼星)이 남극에 나타났는데, 이를 서해도 안찰사 박순가가 노인성으로 알고 역마를 달려 보고하게 했다. 의종은 이 노인성의 출현을 기꺼워하여 잔치를 거둬다가 그해 9월 정중부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그후 낭성을 노인성으로 잘못 보고한 박순가에게는 그 자손까지 금고에 처해지는 벌이 내려졌다.

④ 이렇게 인간의 삶과 연관이어 파악되던 별들도 그 나름의 삶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별은 우주 공간에 퍼져 있는 수소가 중력에 의하여 뭉쳐지면서 탄생한다. 별의 중심부는 그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받아 수축하면서 내부 온도가 높아진다. 태양의 경우도 중력에 의한 압력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는 수천만 도가 되어 ㉡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핵융합 반응은 핵들이 서로 합쳐지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며, 이 에너지는 태양이 붉게 타는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별이나 태양의 중심부에 있는 핵연료는 언젠가는 소진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별은 짓누르는 중력의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여 수축할 수밖에 없다. 수축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별의 중심부는 마치 억눌린 거대한 용수철처럼 그 위에 떨어지는 물질들을 튕겨내고, 그 때 생기는 거대한 충격파가 별을 폭발시켜 ㉢ 최후를 맞이한다.

[문제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47)

- ① 객성은 갑자기 출현한다.
- ② 별이 폭발해도 그 실체는 남는다.
- ③ 별은 시간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 ④ 전통 사회에서는 별의 관측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 ⑤ 별에 부여하는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문제 2] 밑줄에서 '별이 탄생하는 과정'과 '객성이 되는 과정'을 설명한 내용으로 공통적인 것은? 348)

- ① 충격파 발생
- ② 블랙홀 형성
- ③ 수소의 뭉쳐짐
- ④ 핵연료의 소진
- ⑤ 중력에 의한 수축

[문제 3] 밑글로 미루어 ㉠과 관련된 진술로 바른 것은? 349)

- ① 노인성은 블랙홀로 인해 생겨난다.
- ② 노인성은 태양과 같은 원리로 밝게 빛난다.
- ③ 의종은 노인성의 출현으로 왕위에서 쫓겨났다.
- ④ 우리 선조들은 노인성을 상서롭지 못한 별로 생각했다.
- ⑤ 노인성에 대한 최초의 관측 기록이 『고려사』에 나타난다.

[문제 4] 밑글 친 ㉡과 관계 없는 것은? 350)

- ① 별의 크기를 변화시킨다.
- ② 압력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 ③ 수소 핵들이 있어야 한다.
- ④ 별의 온도가 높아야 한다.
- ⑤ 에너지를 방출하여 별이 빛나게 한다.

[문제 5] ㉢과 바꾸어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351)

- ① 일생(一生)을 마감한다.
- ② 미궁(迷宮)에 빠진다.
- ③ 종언(終焉)을 고한다.
- ④ 종지부(終止符)를 찍는다.
- ⑤ 대단원(大團圓)의 막을 내린다.

비문학 독해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키케로가 이미 갈파했듯이, ㉠ **철학자의 책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리석음뿐이다**. 확실히 철학자들은 상식을 거부하고 온갖 지혜를 추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철학적 비상(飛翔)은 희박한 공기의 상승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은 항상 진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철학은 언제나 근거를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이는 것은 철학이 과학적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질서와 자유, 삶과 죽음 등과 같은 어렵고 위험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2] 어떤 탐구 분야든지 정확한 공식화가 가능한 지식을 산출하면 곧 과학이라고 일컫는다. 과학은 철학에서 시작하여 기술(技術)로 끝나고, 또한 과학은 가설의 ㉡ **샘**에서 발원(發源)하여 성취의 ㉢ **바다**로 흘러간다. 철학은 미지의 것 또는 부정확한 것에 대한 가설적 해석이다. ㉣ **철학이 진리 세계를 탐구하는 최전선이고 과학이 점령 지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식과 기술로 건설된 후방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다**. 철학은 어쩔 줄 몰라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철학은 승리의 열매를 과학에게 넘겨주고 나서, ㉤ **거룩한 불만을** 간직할 채 아직도 탐구되지 않은 불확실한 지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3] 좀더 전문적으로 말하기로 하자. 과학은 분석적 기술(記述)이고 철학은 종합적 해석이다. 과학은 전체를 부분으로, 모호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분해하려고 한다. 과학은 사물의 가치나 이상적 가능성을 탐구하지 않으며, 사물의 전체적인 궁극적 의미를 묻지 않는다. 과학은 사물의 현상과 작용을 밝히는 데 만족하고, 현존하는 사물의 성질과 과정에만 시야를 국한한다. 과학자는 천재의 창조적 진통뿐만 아니라 벼룩의 다리에도 흥미를 느낀다.

[4] 그러나 철학자는 사실의 기술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철학자는 사실과 경험의 관계를 확정함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려고 한다. 철학자는 사물을 종합적으로 해석한다. 호기심 많은 과학자가 우주라는 거대한 시계를 분해해 놓으면, 철학자는 그 시계를 이전보다 더 훌륭하게 조립하려고 애쓴다. 과정을 관찰하고 수단을 고안해 내는 지식이 과학이라면, 여러 가지 목적을 비판하고 조절하는 지혜가 철학이다. 사실이 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철학이 없는 과학, 지혜가 없는 지식은 우리들을 절망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한다. 과학은 인간에게 지식을 주지만, 철학은 인간에게 지혜를 제공한다.

[문제 1] 밑줄의 내용으로 미루어 ‘과학’과 ‘철학’의 대비적 속성을 잘못 짚은 것은? 352)

	과학	철학
①	지식(知識)	지혜(智慧)
②	분석(分析)	종합(綜合)
③	사실(事實)	가치(價値)
④	기술(記述)	해석(解釋)
⑤	현존(現存)	현상(現像)



